하나님 전도 없는 예수 전도

(이사야 61:1~11)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전도 없는 예수 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전도 없는 예수 전도'
여러분은 '하나님 전도, 창조주 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지도 모릅니다. '전도'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을 전도해야 제 맛일까요? 그런데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전도'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식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의인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천당에 안 계신다면 그래도 천당에 가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천당'은 잘못된 전도의 구호입니다. 전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일깨워줘야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가르치고, 그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직 천당을 가겠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당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지 천당 가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뜻이 담겨있는 구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새삼스럽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특별히 1절부터 3절에서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였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일이 예언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게 될 이들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의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이들을 한데 묶어서 2절에서는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모든 슬픈 자'들의 정체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합니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결국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슬픔의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슬픔 속에는 네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가난함과 마음 상함과 포로 됨과 갇힘이 있습니다. 이 슬픔에 대해 구원받는 자들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확 줄여버립니다.

이사야는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후에 등장하게 될 바사 제국에 의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반복해서 예언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1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해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메시아의 구원과 해방 사건의 예표로 삼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해방이 주어진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남 왕국 유다의 백성이 포로생활에서 해방되는 곳은 시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사야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구원의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시온에 머무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언뜻 구원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좁아져도 되겠는가하는 염려가 생깁니다만,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시온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물론 시온에서 하나님을 소리 내어 부른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온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고 특별히 번제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보면 번제단의 주된 기능이 나타납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비롯한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번제단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라고 시작하여 42~4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려오시게 되고 밀착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상번제의 의미는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시온에 있는 번제단을 기억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계속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꼭 몸이 시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하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 없음을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망부석 설화가 있습니다. 박재상의 아내가 일본의 사신으로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대한해협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목 놓아서 남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바다는 침묵합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배의 돛대가 보이기만을 기다리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움에 사무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이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를 잃어서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사업은 망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슬픔을 해결해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인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자는 메시아와 상관이 없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승진을 못해서 슬퍼하는 자도 메시아와 상관이 없습니다. 몸에 죽을병이 걸렸다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러한 슬픔을 해결해주시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망부석이 되었듯이, 건강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육체를 건강케 함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으로 바꾸시려는 슬픔과, 내가 기쁨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슬픔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려는 구원의 은총은 빗나가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시온이 아닌 세상을 향한 엉뚱한 슬픔을 가진 자는, 메시아가 주시는 기쁨을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사업이 잘 되리라 믿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건강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슬픈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돈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하반부를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의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하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사과 같고 배 같고 감 같은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메시아가 오심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마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야말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의 열매가 맺는 의의 나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이와 같기 때문에 예수 천당식의 전도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1절에 나왔던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겸비하다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 내 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겸비하다고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시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아들이 죽게 된 나인 성 과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바르(רבש)’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깨뜨리다, 산산조각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아온 과부의 마음은 아들을 잃는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자들 말입니다.
‘포로 된 자’는 바벨론에 잡혀간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상황을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포로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기쁨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포로 된 자와 갇힌 자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포로는 삶의 터전 자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갇힌 자는 히브리어 아사르(רסא)에서 온 말로써 ‘굴레를 씌우다, 결박하다, 띠 띠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할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할 마음이 돈과 밀착되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굴레가 되었기에 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와 밀착되어 버린 마음이 굴레가 되어서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십자가로 떼어지고 하나님과 밀착하게 하고 자유하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 천당만을 외치던 우리의 전도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효과가 있으려면 시온의 슬픔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 없어서 가난하고 슬픈 자들에게 죄 사함 받고 교회에 충성하면 돈 없는 슬픔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병 걸린 슬픈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으면 슬픔이 사라진다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우선 슬픔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도 받는 자들에게 시온의 슬픔을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다시 녹취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야는 3등 안에 들어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전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창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의 창조주,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

주이시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의 슬픔입니다. 시온의 슬픔이 생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없어서 슬픈 상황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나으리라는 식의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지.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가겠어.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물어보자'라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왜 그렇게 못됐는지 자녀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 생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슬픔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 문제나 배우자에 대해 혹은 사업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뜻에 따라 합당하게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도할 때에 전도 받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식되어진 시온의 슬픔에 대해서 기쁨을 안겨주는 혁명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기 다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온의 슬픔을 전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죄 사함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죄 사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한 모습을 목적으로 한 죄 사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장로교 통합측에서도 한 때는 470만에 이르던 성도가 250만으로 줄었고 이조차 허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온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헛소리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시온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완벽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기에 신앙은 종교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상시한 사람들이 불교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철학을 종교로 만들었고 기독교는 생명의 역사를 종교로 격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온의 슬픔이 아닌 세상에서 생겨난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이 종교이고 우상숭배이고 미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이지만 이렇게 시온의 슬픔을 강조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온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는 메시아가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생각의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천당이 아닙니다. 시온의 슬픔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도 곡해되어 우상시 될 뿐입니다. '당신에게 창조주가 계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찾고 계십니다.'라고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듣

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낚시 바늘에 고기가 낚이는 것처럼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말에 마음이 꿰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슬퍼했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